

2007 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의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 믿는이들

메시지 33

그들의 현재—신성한 삼일성의 완결이신 그 영을
그분의 교통 안에서 체험하고 누림

성경: 고후 13:14, 요 7:37-39, 14:17, 15:26, 16:13, 20:22

- I. 믿는이들로서,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체험하고,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체험하며, 신성한 삼일성의 완결이신 그 영을 그분의 교통 안에서 체험한다—고후 13:14.
- II. 우리에게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완결되신 영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다—요 7:39, 갈 3:14, 빌 1:19.
 - A. 완결된 영은 육체 되심, 인간 생활, 십자가에 못 박히심, 부활의 화정을 통과하신 후의 삼일 하나님이다—요 7:39.
 1. 삼일 하나님께서 그 영이 되시기 위해 통과하신 과정은 경륜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—1:14, 히 9:14, 고전 15:45 하.
 2. ‘과정을 거친’은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한 경륜 안에서 통과하신 단계들을 가리키고, ‘완결된’은 그 과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며, ‘완결되신 영’은 하나님의 영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영이 되었다는 것을 함축한다—요 7:39.
 - B. 완결되신 영은 ‘그 영’이다—갈 3:2, 5, 14.
 1. 그 영은 삼일 하나님, 사람 예수님, 그분의 인간 생활, 그분의 죽음, 그분의 부활의 복합체이다—요 7:39, 1:14, 29, 12:24.
 2.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, 복합되신, 생명을 주시는, 내주하시는, 일곱 배로 강화되신 삼일 하나님으로서, 그분이 선택하시고, 구속하시고, 거둬나게 하시고, 거룩하게 하시고, 새롭게 하시고, 변화시키시고,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, 영광스럽게 하신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서 그들의 영원한 몫이 되기 위한 분이시다—계 22:17.
 3. 하나님의 경륜은 그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—갈 3:2, 5, 14.
 4.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이들 안에서 완결되신 영으로서 사시는 생활이다—5:16, 18, 25, 6:8.
- III. 그 영은 실재의 영이다—요 14:17, 15:26, 16:13.
 - A. 실재의 영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가지고 하시는 바의 영이다. 실재의 영은 하나님의 존재, 하나님의 소유, 하나님의 행하심의 영이다.
 - B. 실재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존재의 실재화이다—13 절.
 1. 아들 안에서의 아버지의 모든 어떠하심과 아들의 어떠하심이 그 영 안에 실재화된다.
 2.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모두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의 실재가 그 영이다. 그 영은 실재이다—요일 5:6.

3. 그 영은 아버지, 아들, 영원한 생명, 은혜, 신성한 모든 것의 실재이시다—롬 8:2, 9-11, 히 10:29.
- C. 실재의 영은 믿는 이들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의 실재이시다. 실재의 영은 참 그리스도, 참 예수님이시다—요 14:16-17.
- D. 실재의 영이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신다. 아버지의 존재의 모든 것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고, 그 영에 의해 아들의 존재의 모든 것과 아들이 가지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, 그 영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어 우리의 몫이 되게 하신다—16:13.

IV. 그 영은 아들이 부활 안에서 믿는 이들 안으로 내쉬신 거룩한 숨이다—요 20:22.

- A.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어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다는 것과 부활 안에서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영, 거룩한 숨이 되셨다는 것을 계시한다.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완결된 영으로서 믿는 이들 안으로 내쉬셨다—1:1, 14, 29, 20:22.
 1.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이들 안에서 사시고 믿는 이들이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살도록, 그분이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고 믿는 이들이 그분 안에 거하도록 그 영으로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내쉬어지셨다—20:22, 14:19-20, 15:4-5.
 2. 믿는 이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내쉬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. 그 영을 믿는 이들 안으로 내쉬심으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나눠주셨다—고전 15:45 하.
 3. “이 영 안에 포함돼 있네 인생의 고난 죽음의 효능 그분의 부활 다스리심 모두 그 영의 숨 안에 있네”—*찬송가*, 196 장 4 절.
 4. 요한복음 20 장 22 절에 있는 성령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인데, 그것은 이 영이 그분의 숨이기 때문이다. 그 영은 아들의 숨이시다.
- B.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영적으로 호흡함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 숨이신 완결된 영을 받아들여야 한다—빌 1:21 상, 애 3:55-56, 롬 10:12-13, 살전 5:17.
- C. 숨이신 완결되신 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시다. 오직 그 숨, 그 영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, 오직 그 숨만이 이기는 이가 될 수 있다—갈 3:2-3, 14, 빌 1:19, 계 2:7.

V. 그 영은 생명수의 강이시다—요 4:14, 7:37-39, 계 22:1.

- A.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생명 공급으로서 생명 요소와 그리스도(생명나무)이신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려고 흐르고 계신다—계 22:1-2, 시 36:8-9.
- B. 삼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서는 원천으로서, 아들 안에서는 샘으로서, 그 영 안에서는 강으로서 우리 안으로 흐르고 계신다—요 4:14.
 1.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는 참 원천이신 아버지가 계신다. 원천이 드러나거나 솟아날 때 그것이 아들이시고, 샘이 강으로 흐를 때 그것이 그 영이시다—요 7:37-39.
 2. 우리가 생수를 마실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원천이 되고, 원천은 샘으로 드러나고, 샘은 강으로 흐른다—요 4:14.
 3. 우리 속에는 동시에 원천과 샘과 강이 있다. 원천은 드러나고, 샘은 솟구쳐나오며, 그 솟구침은 생수의 강으로서 흘러 새 예루살렘에 이른다—계 22:1.